

# 장수군, 예산 5000억 시대 개막 무주군, '적극 행정' 빛났다

### 2026년도 본예산 5108억원 확정... 국·도비 확보·공모사업 도전 결과

장수군은 22일 군 역사상 최초로 '예산 5천억 시대'를 맞이 장수군청 출입 기자 간담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군은 경기 둔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5,108억 원 규모로 2026년도 본예산을 확정하면서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예산에는 지난 3일 추가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총 371억)이 신규로 반영되면서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도 동시에 개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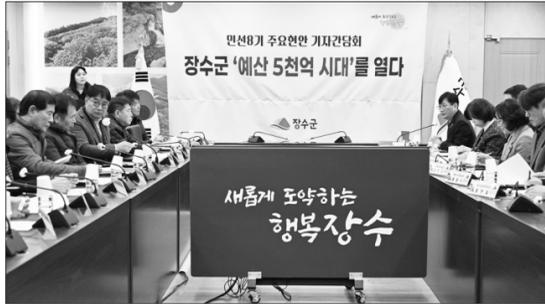
2026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4,602억·특별회계 5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회계는 351억 원(8.27%)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93억 원(23.39%) 증가했다.

그동안 최종예산 기준으로 5천억 원을 넘긴 사례는 있었으나 한 해 군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당초 본예산이 5천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 5천억 시대는 국세 세수 결손과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도전의 결과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1,468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882억 원, 환경 7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4억 원, 문화 및 관광 303억 원 순으로 반영됐다.

군정 주요 사업별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71억원 △외림·금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3억원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84억원 △치유마을 조성사업 79억원, △행복드림 반값 입



장수군은 22일 군 역사상 최초로 '예산 5천억 시대'를 맞이 장수군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대주택사업 75억원 △동화지구 하천제해예방사업 56억 원 △천천-장수 IC 연결도로 개설 30억원 △K-사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35억원 △한누리전당 복합문화시설 현대화사업 15억원 △장수파크골프장 조성사업 8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림분야 사업에 예산을 대폭 반영해 지역의 근간인 농업을 뒷받침해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장수 만들기에 집중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비와 환경, 생활 인프라,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까지 고르게 반영해 주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장수군은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공모·정책사업을 적극 유치하며 지방교부세 감소로 위축된 일반재원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왔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계면별 농촌공간정비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장수누리랜드 관광중심거점 조성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총 2,144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본예산에 반영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공백을 보완하고 재정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장수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하게 전국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달성해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이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 최고 등급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재정확보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38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도 추가로 확보하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다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장수군은 지난 18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제1기 장수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관내 보건·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 기관 전문가 14여 명이 참석해 2026년도 장수군 통합돌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 통합돌봄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장수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장 전달 및 기념 촬영, 통합돌봄 사업 승인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내년 통합돌봄 도입에 대비한 세부 실행전략을 확정하고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역할을 확인했다.

이번 논의된 주요사업으로는 △방문진료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 △병원동행서비스 등으로 군은 의료부터 보건, 일상돌봄, 주거까지 전 분야를 통합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북자치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군부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적극 행정과 행정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한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기관 표창과 함께 3천6백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정 주요 시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무주군은 △정량 지표 달성률, △정성지표 선정 건을 비롯한 △실적보고회 개최 수, 성과지표 연계율, 정성지표 우수사례 제출 수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실적(8개 항목) 등

노력도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부군수 주재의 사업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표별 담당 공무원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실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업무추진 결과가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토대가 됐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군정 운영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의회,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22일 진안군의회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특별회비 전달식에는 동창욱 의장을 비롯해 김한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무처장, 김정숙 대한적십자사 진안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창욱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뛰고 계신 적십자사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 전



반에 온기를 전하고, 기부문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적십자 회비는 재해 이재민, 저소득층 구호사업, 사회봉사, 지역보건·의료·혈액사업과 같이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는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 하반기 장학생 선발 승인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이 귀농귀촌센터 교육장에서 '2025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장학생 512명 선발과 총 4억 9천여만 원 규모의 장학금 지급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장학금 112명 △대학생 주거지원비 장학금 361명 △대학생 희망 장학금 24명 △특기장학금 9명 △예체능 문화인재육성 장학금 6명 등 총 512명이다. 장학금은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학금 지급 승인과 함께, 고교 내신 5등급제 전환에 따른 재단 인재육성 규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2025학년도 1학년부턴 고교 내신등급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고등학생 성적우수 장학



금 지급 기준을 기존 내신 1~3등급 이내에서 '내신 백분위 4%~23%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내 고교 교육협력회의를 통해 교사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제시된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장학생 선발과 제도 개편은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물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 선정과 포상금 300만 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리·지적정보·지적조사·공간정보 업무의 추진 실적 및 우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진안군은 △신속한 지적민원처리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정비를 통한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 사유지분할 측량비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분쟁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인 점,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가관리 △군민 편익의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시설물 관리 등 주민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지역자활센터 문화 발표회·어울 한마당 개최

진안군은 22일 자활참여 참여자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지역자활센터 문화발표회 및 어울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직쇼와 소프라노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자활참여주민 동아리 활동 발표, 명랑운동회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참여 주민들이 1년 동안 활동해 온 문화 탐방반, 퍼즐반, 공예반, 음악반의 동아리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명랑운동회에서는 자활참여자들의 노래, 댄스를 뽐내는 각종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져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안군에서는 현재 7개의 자활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